

봄

'빨강머리 앤'과 인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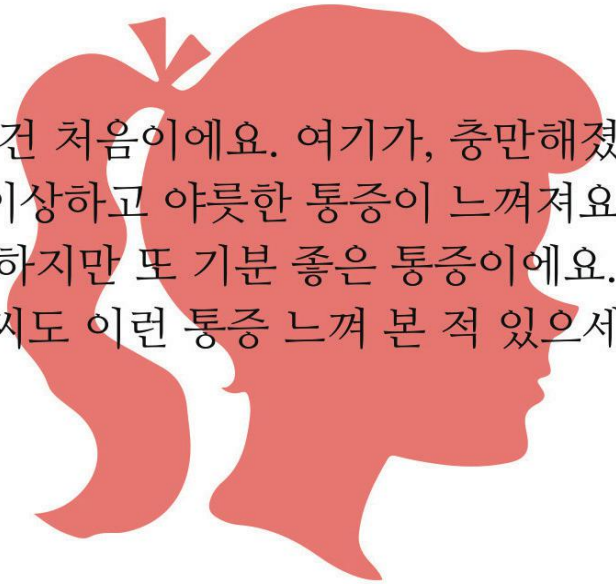


명작의 밤 영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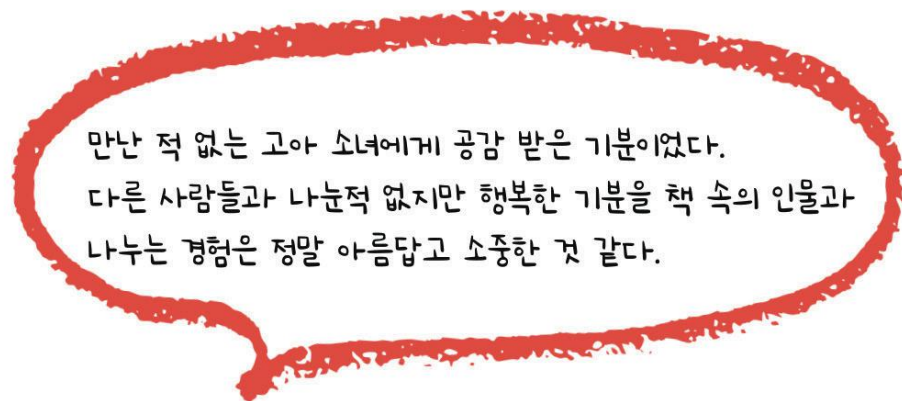
빨강 머리 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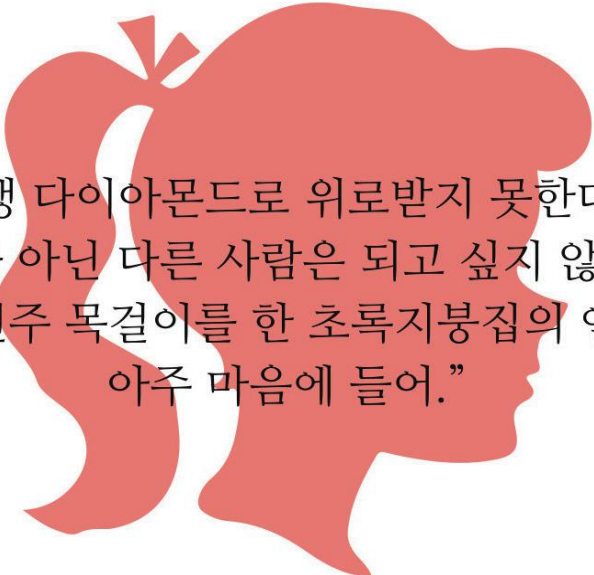
“이런 건 처음이에요. 여기가, 충만해졌어요.
이상하고 야릇한 통증이 느껴져요.
하지만 또 기분 좋은 통증이에요.
아저씨도 이런 통증 느껴 본 적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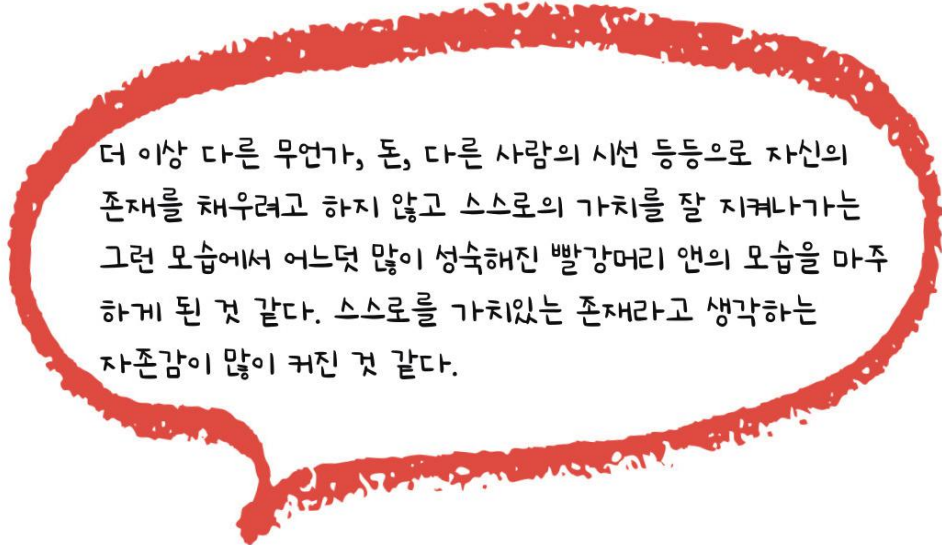
만난 적 없는 고아 소녀에게 공감 받은 기분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 없지만 행복한 기분을 책 속의 인물과
나누는 경험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다.

"아아, 꿈을 가진다는 건 신 나.
꿈이 많으니까 막 기쁜걸,
야망이란 건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니까.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
하나를 이루자마자 또 다른 목표가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이고,
그러니 인생이 이렇게 흥미진진하지"

끝이 없는 목표가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긍정적인 앤을 보며 앤은 자신의 행복을 직접 만들고 선택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평생 다이아몬드로 위로받지 못한다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난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지붕집의 앤이
아주 마음에 들어.”



더 이상 다른 무언가, 돈, 다른 사람의 시선 등등으로 자신의
존재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어느덧 많이 성숙해진 빨강머리 앤의 모습을 마주
하게 된 것 같다. 스스로를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많이 커진 것 같다.

Q. 처음 초록 지붕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웃음)

저는 아직도 처음 초록 지붕 집을 눈에 담고
마차에서 내렸을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 오르고는 해요.

매슈를 만나고 마차를 타고 가는 길 조차
한 장면, 장면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물결 호수와 황홀한 풍경들,

제가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죠.

제 인생에서 절대 지우지 못할 기억이에요.



Q. 가족이 생기고,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평생 사랑 받지 않아 본 저로서는 사랑은 참 달콤했죠.
사랑 받는다는 건 참 멋진 거예요. 저도 사랑은 맛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고난에 눈이 가려져,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사랑의 힘은 강력하니까요. (웃음)
언젠가 자신을 향한 가족, 친구들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는다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될거라고 믿어요.



Q. 당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디 곳에서든지 구박 받고, 반겨지지 않던 저였는 걸요.
독특하고도 특이하다고 생각 될 수는 있지만... 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저의 상상과 행동에 공감하고 위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뻐요. 여전히 빨간머리에 주근깨를 잔뜩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는 아주 행복해요.

뻬뻬 말랐던 어리고 상처받은 소녀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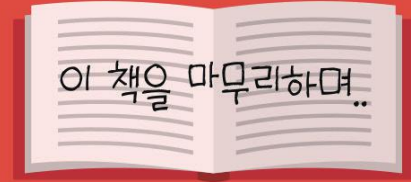




이 책을 마무리하며..

요즘 사대의 가정에 대한 시련이 마음 아픈 순간이 있다.
아이가 있으면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을 쏟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아이가 부부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 등등.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 같지는 않다.
부모가 아이에게 헌신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 역시 존재만으로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릴라, 매슈와 앤의 관계도 일방적이지는 않다.
앤의 존재만으로도 마릴라와 매슈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절제되어있는 삶에 풍성함을 불어넣어주었다.
한 생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조금은
높게 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정말 훌륭한 것 같다

- 윤창민, 빨강 머리 앤과 나의 인생 中 -



이 책을 마무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안다.
하지만 생명이 우리에게 권고한대로 범사에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다.
내가 감사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는 어떨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에 감사를 깨우쳐야 한다. 어릴 적 부터 특별하지 않은 계기로
좌우명을 항상 감사하자로 정하게 되었다. 진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감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일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성과를 더 잘 내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거서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다.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내가 감사하든 아니든 좋은 결과만 중요시하는 세력이 있다면
내가 변화하고 그 변화를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 변화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감사를 간구하고 찾는 것이다.

- 박예당, 빨강 머리 앤과 나의 인생 中 -

이 책을 마무리하며..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진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정말 수 없이 넘어진다. 안도 마찬가지로였다.
정말 수 없이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했다.
세상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쳐준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4절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산성 곧 피난처이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조금은 아니 어찌면 안보다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박초연, 빨강 머리 앤과 나의 인생 中 -

빨강 머리 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겨울 안의 앤을 통해 보는 것들

박예담

열일곱 살의 나이에 돌아보자면, 순간 같았던 인생을 고찰하자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빨강 머리 앤을 읽으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앤과 책의 인물들이 하는 따뜻한 대사들의 감성에 젖기도 했고, 포근한 배경을 상상하며 책에 들어가 즐기기도 했다. 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갈망하며 오직 상상으로만 자아실현을 이루었다. 그러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기분파인 앤에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책에서 앤은 고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누린 누구보다도 당연한 것에 감동하고 감사해한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

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을까? 어쩌면 아픈 과거를 가지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왔던,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던 앤이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다. 내가 감사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는 어떨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에 감사를 깨우쳐야 한다. 불행하게도 '감사'와 같은 것들은 누구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릴 적 부터 특별하지 않은 계기로 우연히 좌우명을 '항상 감사하자'로 정하게 됐다. 진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혼자 생각할 수록 감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일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성과를 더 잘 내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거기서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다. 나의 자그마한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 설령 내가 감사하든 아니든 좋은 결과만 중요시 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내가 변화하고 그 변화를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 변화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감사를 간구하고 찾는 것이다.

앤은 그토록 원하는 가족이 생기고, 친구를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다. 사랑 받을 줄도 몰랐고 사랑 받아 본 경험이 없었던 앤에게 사랑 받은 것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사랑에 면역이 없어 기뻐하는 앤을 보고 내가 받는 사랑의 의미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랑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성경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레19:18), (마22:39) 내가 주는 사랑과 내가 받는 사랑은 내 생각보다 더큰 용기와 기쁨과 행복을 주고 받는다. 쉽고 또 알게 생각할 수도 있고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사랑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고 그것을 베풀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게로 와서 몇 배로 아플 수 있는 건 남을 가족과 같이, 정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찝찝 맛았던 마를린과 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며 가족간의 사랑과 피로 뺏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름다우며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이웃과 가족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막12:33)

앤은 영혼이 닳은 사람을 많이 언급한다. 사람들은 영혼이 닳았다는 개념에 정도는 달라도 모두 공감할 것이다. 같은 행동을 해도 좋게 받아들

여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그건 정말 사랑을 베푸는 걸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없다. (눅:32) 앤과 같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쓰며,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변화해야 한다. 앤이 계속해서 영혼이 닳은 사람을 발견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더불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반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빨강 머리 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앤과 다이애나의 관계도 신선하고 날것의,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미소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 까지 친구로 남을 관계는 무엇일까. 친구는 단순히 나이가 비슷한 또래여서, 상호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관계성을 넘어서 내면의 교제의 욕구를 채워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다. 공감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준다. 앤에게 다이애나 같은 친구가 나에게도 있다.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친구가 잘되기를 바라며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운 것 같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때 친구로 인해 치유 받고 또 친구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다. 형제 보다 친밀하고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인생에서 찾고, 만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친구가 다가오길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먼저 친구를 섬기고 사랑해야 삶을 생기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우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빨강머리 앤에서 앤은 줄곧 자신의 빨강머리에 콤플렉스를 나타내며 빨강머리인 자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예뻐진 자신을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 다이애나의 어머니가 가진 오해를 풀고 인정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빨강머리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고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한다.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졌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외관만을 보고 판단하기 일쑤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삼상16:7) 김용의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에도 와닿았지만 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상기되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순간,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도 나의 내면 보다는 외면에 집착하며 남에게 보여지는 데에 신경을 몰두해 스트레스 받는다.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었던 것 같다. 가족 중 나만큼 외관과 보여지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고 부족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이렇듯 우리는 빨강 머리 앤, 통통 튀면서도 따뜻한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감성과 문학 뿐만 아니라 감사, 사랑, 행복도 엿보았다. 앤과 공감하며 기뻐하고 앤에게 배울 점도 얻었다. 우리는 앤처럼 감사하고 앤보다 사랑하고 앤과 같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마음 속에 또 하나의 앤을 발견한 것 같아 좋았다. 문학의 기쁨을 즐기고, 나누고 싶다.

내 마음 속 작은 빨강머리앤

윤창민

빨강머리앤은 나에게 참 많은 가르침들을 주는 책이었던 것 같다. 빨강머리앤이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이유를 우리 마음 속에서 저마다 빨강머리앤이 한 명씩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기발랄한 아이, 아름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 사랑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저마다 한 명씩 살고 있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빨강머리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다. 내 안에도 작은 앤이 살고 있다. 그렇기에 나 역시 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어버린다.

사회인으로서의 나, 아들로서의 나, 아버지로서의 나 등등 '사회가 요구하는 나'가 어느덧 '스스로의 나'보다 더 커지고 있기에 어느덧 우리는 '마음속 상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속 상처'에 빨강머리앤은 조심스레 손을 얹는 모습이 아른거린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너의 잘못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일거야.' 빨강머리앤은 말한다. '제 잘못이란 걸 인정해요. 저도 이번에 무언가 배운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하지 못하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저 친구보다 못하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빨강머리앤은 말한다. '제가 기뻐한다는 사실이 더 좋았어요. 조사가 잘하는 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점점 귀찮은 애가 되어 가고 있던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더 높은 자리에 서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삶이야.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삶인거야.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거야.' 빨강머리앤은 말한다. '난 평생 다이아몬드로 위로받지 못한다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난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지붕집의 앤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라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91편 4절-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요즘들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누군가의 삶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도 같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좋은 형이 되고 싶고.

'매슈는 앤의 열정적이고 쾌활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지었다.

앤도 따라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매슈는 자신이 앤의 교육을 맡지 않은 것을 몇 번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전적으로 마릴라의 몫이었다. 매슈의 몫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속내와 의무 사이에서 슬하게 갈등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마릴라는 매슈가 그런 식으로 다 망쳐 놓았다고 불평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종종 소소한 칭찬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작은 소망에 매슈는 참 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는 것 같다.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마. 그냥 함께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있을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 하지마."

누군가에게 매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뒤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힘든 순간 함께 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 한 켠에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놓는 일이 아닐까?

'마릴라는 다정한 눈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난롯불과 그림자가 부드럽게 아른거리는 곳이었기 망정이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밝았다면 절대 드러내지 않을 표정이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너를 키우기로 했을 때 매슈와 난 힘닿는 데까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줘야지, 결심했었어.'

'어렸을 적 네 모습이 생각났어, 앤.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네가 영영 어린아이로 남아줬음 좋겠구나. 이제 다 자라서 떠나려고 하잖아.'

'그대로 이걸 행운이라고만 할 순 없는 문제야. 우리에게 앤이 필연한 걸 아셨던 하느님의 뜻인거지.'

함께 하는 사람이 매슈만은 아니었나 보다. 마릴라 역시도 마음 한 켠에 앤이 들어와 있었나 보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 한 켠에 자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 한 켠에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절-4절)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2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7절)

마릴라와 매슈를 보자니 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요즘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들이 눈에 보인다. 한 생명을 양육한다는 것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나 해야할까?

마릴라와 매슈의 모습은 한 생명에게 깊은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또 가치있는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선물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육아라는 의미가, 가정이란 의미가 너무 작아진 것이 안타깝다.

빨강머리 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정다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갈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지수를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다. ‘빨강 머리 앤’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기, 가족과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하기, 자연을 감상하며 즐기, 호수에 띄운 나무배에 누워 연극놀이 하기, 티파티와 학예회에 참여하기 등 이 밖에도 행복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동은 아주 다양했다. 사람들은 항상 행복에 목이 바짝 말라 있다. 우리들은 행복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더 본질적인 행복을 가지고 싶고, 절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찾아 계속해서 헤맨다. 그러나 우리는 헤매던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먼저 가족에게서 온다. 사람들은 가족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보다 가족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가족의 본질은 ‘함께하는 것’이다. 앤과 마릴라가 몇십여 년을 함께 살았던 매슈를 잃었을 때 앤이 매슈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마릴라에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자 마릴라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앤의 곁에서 함께하며 위로한다. 마릴라는 앤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앤이 마릴라에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말한다. 마릴라의 말에서 앤과 함께할 때의 위로와 초인적인 기쁨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매슈가 없이 기쁠 수 있다는 것에 앤이 죄책감을 가질 때 마릴라는 생전 매슈가 좋아했던 앤의 모습대로 즐겁게 지내라고 말해주는 동시에 앤의 마음을 잘 안다며 공감한다. 이렇게 가족은 서로의 곁을 지키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족 안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온 마음을 써서 도우며 깊이 공감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시편 13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란 하나님 앞에서 자녀 된 가족으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된 가족이 연합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또 가족이 함께 동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가정 안에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슬픔의 돌파구가 되어줘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두 번째는 친구이다. 친구는 동료라고 할 수 있고 영혼이 닮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지금 말하는 동료는 소통이 잘 되는 사이를 말한다. 앤은 이렇게 말했다.

“조세핀 할머니는 결국 저와 영혼이 닮은 분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를 봐선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 봐선 몰라요. 매슈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영혼이 닮은 사람이란 게 그렇게 드물진 않은가 봐요. 영혼이 닮은 사람이 많다는 건 정말 근사해요.”

영혼이 닮은 사람은 뜻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뜻한다. 영혼이 닮은 사람은 돈독한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에베소서에서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서로 뜻을 합하기 위해 양보하는 것도 힘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교제를 하는 공동체도 많지 않다. 친구 사이에서도 같

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우리는 이 옷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동체의 머리로 삼아야 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힘을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다.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세 번째는 꿈의 유무이다.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꿈을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그릴수록 행복하다. 앤은 자신이 오래도록 희망했던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마릴라를 보조하며 집에서 독학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때 앤이 마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 어느 때보다 야심 차요. 다만, 꿈의 방향을 조금 틀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올 거라 믿어요. 퀸스를 졸업했을 땐 제 미래가 곧은 길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이정표를 보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전 길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믿을 거예요, 아주 멋진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길모퉁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혹적이잖아요. 길 너머 풍경이 어떨지 궁금해져요. 어떤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아름다움이 펼쳐질지, 그리고 저 멀리에선 어떤 굽잇길과 언덕과 골짜기로 이어질지."

꿈은 살아갈 때 모든 긍정적인 희망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모퉁이를 마주한다. 그럴 때 앤처럼 긍정적인 희망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용기 있게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과 희망은 먼저 꿈이 있어야 생긴다.

잠언 29장 1절에서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야만 한다.

행복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만족과 감사이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찾으며 숭배하는 부와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제인과 몇 명의 친구들이 부자들의 다이아몬드와 부를 부러워할 때 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린 부자잖아. 우린 16년이나 살아왔고 여왕 못지않게 행복한 데다 상상력도 있는걸, 많건 적건 말야. 너희들, 저 바다를 좀 봐. 은빛 물결이랑

그림자랑 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 우리가 백만장자고 다이아몬드로 친친 휘감았대도 이 이상 저 아름다움을 즐길 순 없을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앤의 말에 공감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 우리가 자꾸 잇을 뿐이지만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살아 있다는 것의 가치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앤이 말한 상상력은 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꿈을 꾸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에서 행동했고, 역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상상하는 일은 가능성이 1%만 있어도 그 가능성이 무한함을 믿어야 한다. 시편 2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난 결코 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방법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성경은 은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어야 한다.

행복을 이루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자아 존중감, 즉 자기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앤은 초록지붕집에 겨우 들어와 살게 된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주근깨투성이 모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넌 그저 초록지붕집의 앤이야. 내가 코델리아 아가씨라고 상상할 때 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마주하게 될 거야. 그래도 집 없는 앤보다는 초록지붕집의 앤이 백만 번 낫지 않니."

자아존중의 의미는 우선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조건에 만족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아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아존중감이 충분히 형성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 사랑과 격려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자신을 다독이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다. 혹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1~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가서 1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신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를 말한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 또 자신이 천국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

행복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앤은 스테이지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릴라에게 전달한다.

"열네 살이 다 되어간다는 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마릴라. 스테이지 선생님이 지난 수요일에 열두 살이 넘는 여학생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나이대엔 어떤 습관을 가질지, 어떤 이상을 품을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대요. 스무 살엔 우리 인성이 형성되고 그건 앞으로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래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세울 수 없대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여 참된 가치가 있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청소년 때에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더 재미있고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청소년 시기에는 청년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스무살 이후부터 길게 이어지는 삶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고민해야 하고 인성과 인품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자유로워 보이고 흥미로워 보이는 일들만 생각하며 삶의 가치관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나 자신과 나의 삶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 또 자신이 정말 원했던 행복을 절대 그릴 수 없고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모든 이상을 실현할 기회도 날아가 버린다.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악하고 타락한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된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행동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빨강 머리 앤’ 이야기 속에 있는 행복의 발자국을 따라가보는 것도 행복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빨강 머리 앤에서는 서정적이고 때론 강렬하며 풍부한 행복 속의 시간들을 담고 있으며,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기본값은 우정

이혜민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인간이 삶을 사는 기간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숨만 쉰다고 삶이 아니듯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들숨과 날숨에 이유가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빨강 머리 앤은 들이쉬는 숨으로 상상하고 내쉬는 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의 상상은 농익어 꿈이 되었고 이야기에는 감동이 깃들었습니다.

앤을 문학이라고 해석한 선생님의 해석을 빌려 인생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생은 문학입니다. 문학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인생으로 이야기하려니 너무 부담스러워 문학에 빚대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문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훈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인물과 상황, 그리고 감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닮았습니다. 살기 위해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 사건이 일어나며, 적극적인

감정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우린 느낍니다. 무엇이 되었든 느끼기 마련이죠. 사람은 문학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에 다 담지 못한 우리의 문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일테죠. 내가 기억하는 한 사람은 수만 권의 문학 중 단 한 챕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빨강 머리 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덟 살 봄, 하룻길에 보았던 벗나무를, 피아노 학원 가던 길 맡았던 풀 내음을, 집으로 가던 길 먹었던 알사탕을.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감사했습니다. 새사람 만나는 것에 떨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기대하지도 설레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타인의 시선이고 판단 같습니다.

하지만 앤은 늘 기대합니다. 상상하고 꿈꾸며 설렙니다. 이젠 앤이 가져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늘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소망을 품는 건 다릅니다. 꿈에서 그치는 허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 이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하게 기대하는 법은 꿈을 꾸는 것이라고. 우린 기대하지 않으며 살 수 없습니다. 실망을 딛고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허망한 것을 좇는 것이 아닌 가치를 찾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앤은 초록지붕 집에 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꾸어 갔습니다.

인생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새롭다 느낄 수 있는 태도는 늘 앤을 배우고 성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영혼이 닳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들의 삶을 보며 닳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꿈꾸게 합니다. 인생은 기대의 연속이고 꿈을 꾸는 자의 인생은 풍성한 문학이 됩니다. 이렇듯 인생을 닳은 문학은 곧 친구 같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영혼이 닳은 친구를 만나고는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기쁜 건 영혼이 닳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무엇이 닳은, 영혼이 닳은 친구는 몇 번을 곱씹어도 좋은 책과도 닳았습니다. 언제 꺼내 읽어도 영혼이 채워지는 책과 영혼이 닳은 우정은 닳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며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문학은 영혼이 닳은 친구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문학 같은 친구 영혼이 닳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살지 않지만 죽지 않은 채 늘 우리와 함께하는 문학을 친구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친구는 문학 같습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문학은 인생이고 친구이며 사랑입니다.

친구란 인생에서 마주하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우정이란 사랑의 기초가 되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영혼이 닳은 친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

다.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바닥이 드러나도 괜찮고,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사람의 이름을 친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문학과 문학은 친구입니다. 우정은 사랑의 기초가 되니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문학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우정은 안녕하신지요.

넌 어떤 인생을 살래?

박초연

빨간 머리 앤은 누구보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인생을 산 소녀라고 말할 수 있다.

앤은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차별 가득한 곳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도 나무와 풀, 벌레, 작고 사소한 하나하나에까지 온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하는 앤은 에이번리 마을 속 초록 지붕 집에서도 모두와 잘 어울려 지낸다.

마릴라와 매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때론 열정이 지나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해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여러 사건에 얽혀 마을 대표 사고몽치가 되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며 결국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켜 여러 사람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 돕고 자신의 꿈 또

한 이론다.

그렇다면 앤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세상 모든 것들을 호기심과 열정,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첫 번째로 앤은 그 누구보다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없었던 앤은 채워져 있는 지식보다 비어 있는 지식이 많아 작은 배움에도 감사하며 자신이 모르는 것에 솔직했고 그것을 끊임없이 표현했다. 우리는 앤과 다르게 살면서 수 없이 배움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런것일까, 배운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 또한 그랬다.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계속되는 배움에 지겨워했고 귀찮아했다. 어차피 별 도움 안 되는 배움들을 내가 왜 배워야 하며 전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앤은 달랐다. 어쩌면 앤의 상상력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채울 수 없는 지식을 자연스레 상상로나마 채워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우리는 앤처럼 자신이 모르는 것에 솔직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계속되는 배움이 지겹고 귀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배울 자격이 없다.

두 번째로 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다.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진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정말 수없이 넘어진다. 앤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수없이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앤

결에는 마릴라가 있었고 매슈가 있었고 에이번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있었다. 함께이기에 넘어졌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세상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드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쳐준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산성 곧 피난처이시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넘어져도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 쉽게 믿는다. 하지만 앤은 다르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용기 있게 나아간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고 있으며 내가 보는 시선 안에서만 행동하고 생각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즉 우리 앞에 언제 어떤 모퉁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을 살아간다면 주체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살아 숨 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다르기에 조금은 빠르게, 조금은 천천히 또 조금은 여유롭게 다양한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속도에 치여 자신의 속도를 찾지 못하고 남들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다가 지쳐 포기하는 날들이 더욱 많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히 배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를 찾아 그것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조금은, 아니 어쩌면 앤보다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교제와 마음가짐

정한비

"마릴라, 이거 다이애나한테 절반만 나눠 주면 안 돼요? 다이애나한테 받을 주면 나머지 반이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애한테 뭘 준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한다.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권력, 사랑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을 때 과연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옷을 사고 차를 살 때 왜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사려할까? 옷과 차가 생겨난 본래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그냥 몸을 가릴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위해, 즉 '반응'을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이 부러워하고 인

정해줄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과 자신의 만족감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행복을 얻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오는 행복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남의 행복을 마음으로 느낄 때에 오는 행복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야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주기만 한다면 혹은 받기만 한다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 담긴 본질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 즉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도 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일까 불행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아무도 한가지로 단정지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제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살아있는 교제를 원한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계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다면, 기계에게 우리의 생명을 준다면, 우리는 계

속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 그렇게 빼앗긴 생명은 사람과의 교제에서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불행을 피해 혼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그 불행 속으로 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불행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가려졌던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혼자 있으라 명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의 말씀이야말로 진리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오지않았음하는 순간을 마주한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예상대로 정말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일은 자신이 마음가짐에 따라, 행동에 따라 달라지고 그 모든 일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들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하며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 에너지와 감정을 쏟지 못하고 있다. 앤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 앤이 다시 지옥의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앤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해서 초록지붕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젠 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직 마릴라의 생각과 결정에 달린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앤은 이렇게 말한다.

“있잖아요. 전 즐겁게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껏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즐거워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어떠한 일의 좋지않은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때문에 현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생각을 조금 바꿔 이미 정해진 미래는 그대로 두고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배우기위해 노력한다면 결과가 조금은 기분 좋게 바뀌지 않을까? 앤이 초록지붕집에 살게된 것처럼 말이다.

걱정은 감정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걱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의 마음을 말한다. 이로써 걱정을 하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결정된 미래의 일이나 혹은 내 마음 속에 그 일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을 때의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할지말지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굳이 걱정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왜 하겠는가. 사람들은 걱정되는 일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자꾸만 상상한다. 현실은 그게 아닌데 상상속의 일로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다. 그 때 일어나는 에너지와 감정의 소비는 상상속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한발 더 다가가게 할 뿐이다.